

푸른 눈의 소리꾼이 부른 '쑥~대머리' 재즈 드러머가 장구 치는 '진도 아리랑'



장구를 선보일 바질 뷔비용.

5일 무등산 전통문화관 '유러피언 K-풍류 한국소리전'

지난해 파리 'K-vox 페스티벌 경연대회' 입상자들
한국 '소울소리판' '락음곡악단'과 함께 꾸미는 무대

한·불 이중언어 판소리도

지난해 파리 태양극장에서 열린 'K-vox 페스티벌-유러피언 판소리·민요 경연대회' 현장은 열기가 가득했다. 한복을 차려입은 참가자들은 '진도 아리랑' 등 민요와 '춘향가', '흥보가'의 판소리 난타목을 들려줬다.

당시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간단한 이벤트 행사 정도로 생각했다. 경연을 보고 깜짝 놀랐었다. 이제 막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도 있었지만 정확한 한국어 발음과 함께 판소리가 갖고 있는 애절함까지 선보인 이도 있었다.

당시 경연대회에서 입상했던 '푸른 눈의 소리꾼들'이 광주 공연을 갖는다. 무등산 자락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준비한 '유러피언 K-풍류 한국소리전' (5일 오후 3시)은 수상자들과 한국의 '소울소리판', '락음곡악단'이 함께 꾸미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K-vox 페스티벌'은 한유미·에르베 페조디에 부부가 주최하는 민간 행사다.

페조디에씨는 지난 2001년 파리에서 열린 판소리 공연 불어 자막을 맡게 되면서 판소리와 인연을 맺었다. 한씨는 파리 7대학에서 판소리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두 사람은 2007년부터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판소리 워크숍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불 수교130주년 기념행사 중 하나로 파리에 초청됐던 '안숙선·남상일 판소리 수궁가 입체장' 불어 공연 자막도 맡았다.

페스티벌 입상자들에게는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전통 소리꾼들의 수련방법인 산공부를 통해 한국의 소리가 어떻게 전승되는 지 직접

체험하고 공연에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상자들은 지난 25일 한국에 들어와 파리에서 꾸준히 판소리를 가르쳐온 민혜성 선생과 함께 산공부를 진행했다.

이번 공연에서 눈에 띄는 이는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안나 옛츠씨다. 런던 SOAS 대학 음악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그녀는 각국의 민속음악을 주제로 논문을 준비중이다.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위해 2014년 한국에 머물기도 했다.

심사위원 대상을 함께 수상한 벨기에 청년 바질 뷔비용은 재즈 드러머 출신으로 여수 엑스포를 찾기도 했다. 그가 당시 경연에서 직접 장구를 치며 선보인 '진도 아리랑'은 재즈 색채가 가미돼 독특한 느낌을 전해줬다.

이번 무대에서는 색다른 판소리 공연도 펼쳐진다. 이중언어(한·불) 판소리다.



프랑스인 '아나리 광대' 에르베 페조디에의 공연 모습.

페조디에씨가 이야기꾼 역할을 하는 '아나리 광대'가 돼 판소리 문법에 맞춰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풀어나간 후 한국 소리꾼이 전통 판소리로 같은 대목을 부르는 형식이다. 프랑스에서 판소리 공연을 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민혜성, 하늘씨가 소리를 맡아 '수궁가' 중 '토끼호상'과 '흥보가' 중 '화초장'을 선사한다. 그밖에 솔렌 드록, 빅토린 블라디아, 에티엔느 앙드레가 함께 출연한다.

첫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기원하는 '비나리'로 안나, 바질, 에티엔 등이 출연한다. 그밖에 판소리 '흥보가' 중 '가지마오', '춘향가' 중 '쑥대머리'와 '사랑가', '흥보가' 중 '박타기', 민요 '불타령', '삼추놀이', '할랑랑 잠가', '진도아리랑' 등이 이어진다.

공연 사전 행사로 전통미술공예와 아리랑 변종도 마련돼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62-232-15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파리 태양극장에서 열렸던 'K-vox 페스티벌-유러피언 판소리·민요 경연대회' 후 입상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10년 간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소설가

교보문고, 누적 판매량 집계 2위 하루키·3위 히가시노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설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교보문고 북뉴스에 따르면 2006년부터 작년까지 소설 누적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베르베르는 '제3인류', '나무', '뇌' 등의 작품으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베르베르 특유의 상상력과 개성적인 문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와 추리소설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는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으며, '종이여자' 등 판타지 스타일 소설로 인기를 끈 프랑스 작가 기욤 뫼소는 4위에 올랐다.

한국 작가로는 신경숙이 5위에 오르며 체면치레를 했다. 다음으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김진영이 6위, '높고 푸른 사다리'의 공지영이 7위를 차지했다. '태백산맥' '정글만리'의 작가 조정래는 9위에 랭크됐고, '해리포터' 시리즈로 명성을 얻었던 조앤 K. 롤링은 10위를 기록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자연과 생명의 힘 ... 석연경 시집 '독수리의 날들'

석연경 시인이 시집 '독수리의 날들'(천년의 시작)을 펴냈다.

시인은 초목들로 상징되는 자연과 그 자연에 내재된 생명의 힘을 주목한다. 모두 60여 편이 수록된 시집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맺는 방식에 초점을 둔다.

표제시 '독수리의 날들'은 자연이 그 자체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환기한다. 티베트 지방에서 행해지는 천장(天葬)을 소재로 쓴 시로, 시인은 죽음과 소멸을 받아들이는 생명의 유한성을 노래한다. 천장은 유골마저 완전한 무(無)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연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독수리의 발톱과 부리에는 그새 깃자국이 묻어 있다/ 사라지기 쉽게 잘려진 영혼의 뼈들/ 하늘이 이내 빗장문을 열고/ 지상의 한 영혼이 반가 사유에 드는 날/ 독수리는 신화의 전언처럼 날개의 그늘을 만든다" 이처럼 깊은 사유와 정제된 언어

들은 특유의 울림을 준다. 자연과 인간을 매개로 내적 성찰에까지 이를 단단한 내공이 느껴진다.

강인한 시인은 추천의 글에서 "체협에서 우려낸 감각과 순수 본연의 진정성을 지닌 남도적 서정을 본다"면서 "예리한 '독수리'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시인의 다짐과 그의 내일을 기대해도 좋을라"고 평한다.

한편 석 시인은 전남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13년 '시와 문화'에 시가, 2015년 '시와 세계'에 평론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현재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해남 출신 김이현 첫 소설집 '수족관 이야기' 펴내

인간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해남 출신 김이현 작가가 첫 소설집 '수족관 이야기'(개미)에서 던진 화두다. 작가는 주어진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인물들이 견뎌야 하는 모욕과 불안을 응시한다.

그녀의 소설에는 공통적으로 누군가의 무례와 결례로 상처받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소모품으로 이용만 당하다 팽개쳐지는 운명에 처해 있다. 주어진 사회의 규범에 따르기 위해 자신의 인격을 서비스 상품으로 내놓지만,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고 조직 밖으로 내쫓기고 만다.

김 작가의 작품 전면엔 내재돼 있는 키워드는 '모욕'이다. 인격을 부정당하고 사

물처럼 취급받는 상황을 감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욕적'이다. 표제작 '수족관 이야기'는 서비스직 종동자들이 인격을 상품으로 판매해야 하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다름 아닌 상품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의미다. 김 작가는 단국대 문예창작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07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돼 등단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친절하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별군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